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자

유일준/천안 유일동물병원장

내 주변을 다시한번 챙기고 미래를 생각하자

우리 양육농가는 너나할것 없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양육업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대처할 시간도 없었고 마음의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단결된 힘도 비축하지 못한 터여서 만신창이가 되어 버려 존립기반도 와해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슬기와 굳센 투지로 이겨내야만 할때다.

녹용·녹혈은 -보약-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이 아니어서 더욱 어려운지도 모른다. 경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이다.

그래도 건강이 유지되어야만 당장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는것이 아닌가!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렵다. 그래도 우는 아이에게는 젖준다고 우리 양육인은 올바른 홍보의 길을 가야만 한다. 지레검먹고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7월과 8월은 연중 덥고 습기가 높은 계절이며 장마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또한 9월과 10월의 번식철에 대한 준비기간이다.

사슴사육장은 우선 배수가 잘되게 손질을

해야하고 오물장과 웅덩이는 파리, 모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일사병과 열사병 방지를 위해 그늘막을 설치하고 사슴이 먹는 물은 항상 청결히 해주는 것이 요망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목욕탕을 설치해주면 금상첨화라 할수 있다. 특히 새끼사슴을 위해서는 비가림 시설과 새끼사슴만을 위한 안락한 장소에 먹이와 물을 별도로 먹게 해주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미사슴의 먹이도 곰팡이가 생기거나 변질된 것은 즉시 치워 줘야만 한다.

금년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질병의 발생은 적은 편이었으나 경기부진에 따른 실망으로 인해 우수한 사슴들까지도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까운 때도 있었다.

특히 암사슴의 가격하락은 난산마저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새끼와 어미사슴의 폐사가 많은 편이었다.

5~6월은 성록들의 절각이 양육농가의 주된 과제였다. 금년에는 수입마취제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농가에 부담이 되었던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썩시콜린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에 따른 부작용-폐사, 기립불능-도 다발하였다.

○썩시콜린은 건강한 사슴에게만 사용해야 하고 또한 부작용에 대한 응급조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특히 신장(콩팥)과 간장(간),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었거나 호흡기 질환 경력이 있는 사슴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필자는 썩시콜린을 사용할 경우 최소한의 응급처치 시설로 산소호흡 장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 키시라질이나 펜타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철저한 절식이 요구된다. 이 마취제는 마취과정에서 많은 양의 침을 흘리기 때문에 절각시에 침이 기관이나 폐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끔은 구토하는 경우도 있어 구토물에 의한 오염성 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머리의 위치가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해야만 한다. 다만 마취주사전에 아트로핀을 먼저 주사해 주면 침을 훨씬 덜 흘리게 된다.

특히, 펜타진이나 키시라질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우선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고농도 포도당과 함께.

새끼사슴의 설사

새끼사슴의 설사방지를 위해서는 사육장의 청결과 건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새끼사슴이 설사를 할때는 우선 항생제, 지사제, 전해질을 투여하고 어미사슴이 항문주변을 과도하게 핥지 못하도록 바지를 입혀주고 상처난 항문을 철저히 소독해 주어야 한다.

설사의 원인이 어미사슴의 유방염에 의한 경우는 어미도 함께 치료해야만 한다. 특히 매년 분만된 새끼사슴이 설사를 하는 때는 어미사슴의 유방염을 꼭 의심해 봐야 한다.

어미 사슴의 유방염 치료는 젖소의 유방염 치료법과 대동소이 하다.

7월과 8월의 사슴관리

○ 암사슴과 새끼사슴의 관리

새끼를 분만한 어미사슴은 젖을 주는 시기

여서 농후사료와 질이 좋은 녹사료를 주어야 한다. 하루나 이틀정도 음지에서 말린 목초나 산야초를 최대한 급여하고 변질된 농후사료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허약한 사슴은 격리사육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새끼사슴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 인공유와 청결하고 신선한 물을 공급해 줘서 건강한 사슴으로 자라도록 해야 한다.

○ 숫사슴의 관리

허약한 숫사슴은 녹용을 다른 사슴보다 약간 길게 잘라주면 길게 남은 녹각으로 인해 다른 사슴에게 대항할 수 있어 체력회복에 도움이 된다.

너무 늦게 출생하여 다른 사슴에게 힘이 밀리는 1년생 숫사슴은 절각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건강한 숫사슴중에 이듬뿍(재생뿍)이 돌아난 경우에는 그 길이가 4cm 이상일 경우 철저히 제거해 주어야 동료사슴에게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고 철조망의 파손도 줄일수 있다. 7월중에 절각하는 엘크 사슴은 대개 어린 것들이므로 녹용을 약간 길게 절단해 주며 녹용절각시에는 발굽, 포피염등을 함께 손질하고 구충제도 투여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7월과 8월에는 번식철에 대비하여 사슴장의 철저한 정비와 보강에 힘써야 한다.

그늘막 설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일사병과 열사병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발생하면 사슴을 우선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해열제, 생리식염수, 비타민 등을 충분히 주사해 주어야 한다.

5~6월중 필자에게는 많은 전화문의가 있었다. 첫째는 난산이나 인공조산후 어미사슴이 새끼사슴에게 젖을 주지 않는것에 대한 것. 둘째는 마취제에 관한것. 셋째는 절각후 후유증에 대한 것. 넷째는 새끼사슴의 설사에 대한 것이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으나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미지수이다. 특기할 것은 과도한 채혈에 의한 문제는

단 한건의 문의도 없었다. 예년에는 과도한 체혈 후유증에 대한 문의가 꽤 있었는데……

직장질루

5월의 어느날 경기도 광주에서 전화가 왔다. 작년에 늦새끼를 낳은 엘크 암사슴이 허리를 웅크리고 힘을 주는데 (먹이는 안먹고) 마치 새끼날 때처럼 힘을 주니 왕진해 달라고 해서 도착해 보니 주위에서 사슴을 사육중인 분들도 여러명 있었다.

문제의 사슴은 땅바닥에 앉아서 계속 힘을 주고 있었는데 꽤 마른편 이었고 그 옆에는 지난해에 늦게 분만된 새끼사슴이 성장이 부진한채 계속 서성이고 있었다.

급년 분만한 암사슴의 공격을 막기 위해 여럿이서 사슴장에 들어가 우선 정상용량 보다 적은 양으로 마취를 했다.

10분후에 사슴은 드러 누웠고 진료중 안전을 위해 사지를 보정시킨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우선 암사슴의 질속에 손을 넣어서 검사를 했다. 그순간 필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정상적인 엘크 암사슴의 질속에는 약간의 점액이 있어야 하는데 점액은 전혀없고 뭉쳐진 분변이 딱차 있을 뿐이었다. 없어야 할것만 딱찬 것이다.

이번에는 직장검사를 해 보았다. 직장에는 연변이 딱차 있었다.

이게 어찌된 건가! 주인에게 직장 질루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어렵게 직장과 질속의 분변을 제거한 후 세척기를 직장으로 넣어 직장질루 부분을 통하여 외음부 쪽으로 꺼내어 보여 드렸다.

유감스럽게도 질환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어 있었다.

주인도, 모여있던 사슴목장 사람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한다. 필자는 수의사로서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돌아서야 했다. 도태를 권유하면서……

<해설> 직장질루란 직장에 염증이 발생하

거나, 분만시 새끼사슴의 발이나 주둥이에 의해 질벽과 직장이 파열되어, 질과 직장에 구멍이 생겨 분변이 직장으로도 나오고 질로도 나오는 것을 말한다.

관통된 부분이 작은 경우 수술로써 완치가 가능하나 너무 심한 것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직장질루를 방지하면 질부분이 분변으로 계속 오염되어 임신이 불가능하다.

오연성 폐염

양구, 곤지암과 여산에서 오연성 폐염에 대한 진료가 있었다. 곤지암의 경우는 절각시 머리가 경사윗면으로 향하고 있었고 여산의 경우는 절각시 머리는 경사 아랫면으로 향한 상태에서 구토를 한 경우였다.

3건 모두 동일제품의 마취제였으나 본고에서는 마취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공통된 증상은 기침, 식욕부진, 운동기피, 다량의 콧물과 호흡 곤란이다. 셋다 2회의 왕진후 처방전을 주인에게 알려 주었다.

- P.P.S 근육주사 2일1회 5kg/1cc 2주일간
- 해열제 적량 1일 1~2회
- 거담제 적량 1일 1~2회
- 소염제 적량 1일 1~2회
- 식욕촉진제 적량 1일 1~2회
- 기타 영양제 적량

(본 처방은 여산의 엘크 것임)

오연성 폐염의 경우처럼 장기간의 치료를 하는 경우 물이장이 필수적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위의 처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엘크 사슴의 운명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늦가을로 거슬러 올라가자. 지난해 가을 번식을 위해 합사중이던 어느날 아침먹이를 주기 위해 사육장오간 S씨는 엘크 숫사슴이 엘크 암사슴을 공격하여 여러 군데가 찢기고 뒷다리가 부러진 상

태로 처참히 쓰러진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고 말았다.

『아무리 짐승이라고 해도 저럴 수가 있나? 솟사슴이 좀 난폭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우선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여 솟사슴을 간신히 다른 우리칸으로 분리한 후 필자에게 왕진을 요청하여 왕진하였다.

진찰결과 갈비뼈와 골반골, 그리고 뒷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 고로 S씨와 상의한바 그냥 죽게 둘수는 없으니 죽을때 죽더라도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마취후 우선 부러진 뒷다리는 라이트(신형 석고붕대)로 튼튼히 고정하였다. 부러진 갈비뼈와 골반골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는 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숨쉴때마다 부러진 부분으로 복압이 미쳐 벌떡거리고 있었다.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등을 주사후 회복제를 주시하니 간신히 일어나 먹이통으로 가더니 우물우물 먹어댄다. 『먹는게 뭔지!』

나머지 암사슴들의 번식을 위해 후보종육으로 교체한 후 진료를 마쳤다. 2개월후 다시 방문하여보니 사슴은 살도 조금 썩었고 갈비뼈 부분은 완치상태였으나 다리는 약간씩 절름거리고 있어 고정붕대는 그대로 두었다.

4월초에 방문하여 관찰해보니 살도 많이 썩었다. 동시에 4월말에 방문하여 뒷다리 기브스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4월말에는 필자에게 일신상의 문제가 있어 방문하지도, 전화 연락도 못하고 말았다.

필자를 기다리던 S씨는 4월말 우연히 S씨 목장을 방문한 모씨에게 97년생 엘크녹용을 잘라 줄것을 부탁하였고, 모씨는 녹용을 자른 후 서비스로 문제의 엘크사슴의 기브스를 썩시콜린으로 마취후 제거하여 주었다.

그후 몇일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약 10일 후부터 문제의 엘크사슴은 목과 다리를 뺏뺏하게 하면서 걸어 다니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5월중순 필자가 서산지역을 왕진하고 돌아오던중 그 사슴이 궁금하여 S씨 목장에 들렀

을때 S씨 부부는 친목계관계로 외출중이었다.

필자가 사슴장에 도착하였을때 문제의 사슴은 간신히 일어서더니 계속 서 있기가 어려운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입에는 풀을 물고 있는데 삼키지도 못하고 물고만 있다.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인후두 마비증으로 판단되었다. 거기에 분만때가 가까워서 젖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사슴의 상태로 보아 치료시기는 이미 놓쳐버린 것 같았으나 사슴이 저런 상태인데 주인이 없다고 그냥 올 수도 없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린지 한시간여…….

호흡곤란을 일으킨 암사슴은 비틀거리며 쓰러져 버둥거리기 시작했다. 어미 뱃속에서는 버둥대는 새끼가 보였고 어미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왔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주인이 있으면 즉시 개복하여 새끼라도 살리고 싶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만 임의로 손댈 수 없기에 사슴장 옆집의 아주머니를 불러서 작금의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주인에게 본대로 얘기해 줄테니 우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란다. 출입문이 자물통으로 잠겨 있어 즉시 월장하여 다른 문으로 산소호흡기를 작동시켰으나 약 5분후 사슴은 숨지고 말았다.

잠시후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 죽은 사슴을 사슴장 밖으로 끌어낸 후 방혈을 하고 개복하여 새끼를 꺼내었지만 새끼는 이미 죽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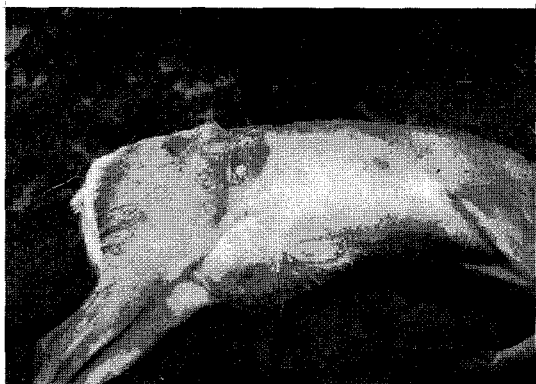
물론 필자로서는 새끼도 이미 죽어버린 것을 알고 있었으나 옆집 아주머니의 얘기가 조금전까지도 새끼가 벌떡벌떡 거렸으니 혹시 살아 있을지 모르니 빨리 꺼내 보란다.

즉시 꺼내어진 새끼사슴은 분만해도 무방하리만큼 완숙되어 있었다. 『아쉽다.』 그로부터 한시간후 주인이 돌아 왔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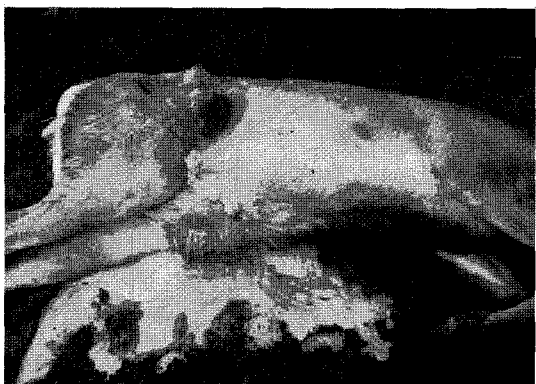
S씨는 필자에게 『나도 없는데 얼마나 고생했느냐. 고맙다』고 했지만 필자는 S씨의 심정을 짐작할만 했다.

주인 S씨가 한마디 한다. 『작년에 죽을 놈을 끝까지 살려보려 했더니 이제는 두마리가 되어 죽었네. 명이 그것뿐인가 보네.』

등뒤에 있던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던 것이 돌아오는 내내 필자의 눈에 아른거렸다.



△ 레드 암시슴의 복부농양(질개전의 모습)



△ 레드 암시슴의 복부농양. 농양의 양이 대단히 많다.

최근에 몇군데 꽃시슴 사육농가에서 신생자 룩의 구강질병이 발견되었다. 증상은 입안에 물집이 생기고 좀더 진행되면 아래턱뼈가 염증이 생겨 부스러지며 이발이 빠지고, 배꼽에 염증이 생기며 허약해져 폐사되는 것이다.

초기에 치료하면 결과는 양호하나 병이 약간 진행되기만 하면 치료가 어렵다.

본고에서는 확실한 병명을 밝히지 못하는게 안타깝다. 다만 수포성구내염과 악성카탈열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 수포성구내염과 악성카탈열의 중복 감염으로 추측되는 엘크 숫시슴의 모습.



△ 수포성구내염과 악성카탈열의 복합 감염으로 추측되는 엘크의 질병.
(양측 구순에 천공이 심하여 수술 가위가 관통된 모습)

엘크에서도 발생된 예가 있어 사진을 게재한다.

사진에 게재된 시슴은 치료후 완치되었다.

<문의 및 상담>

- 전 화 : (0417)565-5297
- 핸드폰 : 011-423-5297

<알 림>

생녹용(生鹿茸)도 전지상태에서 털을 깨끗이 태운후 가공하여 유통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